



## 제주농협 저소득 가정에 'NH한솔 밀반찬' NH플로베 터치 반려식물 나눔봉사도 계속

제주농협(본부장 강승표)은 지난 19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임직원 10여 명이 참여해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 저소득가정 11가구에 'NH한솔 밀반찬 배달나눔 봉사활동'과 'NH플로베 터치 나눔활동'을 실시했다. 제주농협은 'NH한솔 밀반찬 나눔봉사'를 통해 전년도 29회에 걸쳐 따뜻한 나눔을 전달했고, 오는 5월까지 총 49회 나눔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NH플로베 터치 꽃배달 나눔 활동'은 전년도 4회 전달해 소외된 이웃에게 힐링과 행복감을 전달했고 6월까지 총 10회 걸쳐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제주농협 강승표 본부장은 “코로나19와 추운 날씨로



어려운 시기지만 나눔을 통한 사랑의 실천이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눔과 기부문화가 지역사회에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여도지역자활센터 무농약 감귤 전달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여도지역자활센터는 지난 16일 제주시 관내 홀로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무농약 감귤 5kg 들이 640상자(3200kg)를 전달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기원했다.

이번 무농약 감귤 기증은 센터가 운영하는 자활기업 제주담담다 생산한 무농약 감귤을 무상 공급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달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들이 굶파기와 포장 작업에 자원봉사로 나서 이뤄졌다. 노인맞춤돌봄사업부 생활지원사들은 이날 기증받은



감귤을 제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권역 어르신 640가구에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했다.

## 제주양돈농협 돼지고기 수육 나눔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과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신축년 새해 '희망의정' 두 번째 나눔 행사를 지난 18일 개최했다.

이날 장애인지원협의회(건일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열린 행사에서는 희망의 돼지고기 삼겹 80kg의 수육이 전달됐다.

고권진 조합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이종고를 겪는 이웃에게 사랑과 정을 나누기 위해 돼지고기를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온기까지 전할 수 있는 상생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살림제주생협 노형동에 후원물품



제주시 노형동(동장 한명미)은 지난 18일 '숨뿔 살려와 나눔 냉장고'에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한애경)이 지원한 식료품 20여 종을 전달했다.

숨뿔 살려와 나눔 냉장고는 주민센터에 마련한 상설 먹거리 보관창고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후원업체·자생단체와 협업체 연중 운영하고 있다.

## 공무직노조 제주시지부 간식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공무직노동조합 제주시지부(지부장 변성운)는 최근 코로나19 대응 방역현장인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등에 간식을 전달했다.

변성운 지부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방역 행동수칙을 잘 지켜나간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주)케이엘에스 제주시에 성금 기탁



제주시에 소재한 (주)케이엘에스(대표 변기정)가 19일 제주시에 어려운 이웃들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조달청 등록 기업인 (주)케이엘에스는 교통안전시설·야외체육시설·교량난간 등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그동안 제주시 관내 어려운 이웃에 후원물품 지원과 성금 기탁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해오다 2015년부터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부금을 기탁해 오고 있다.

시는 후원받은 성금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아동가구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생계·의료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 강한별 어린이 마스크 1000매 기부



강한별(7) 어린이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정숙)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KF94 마스크 1000매를 기부했다.

기부된 마스크는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 가정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강한별 어린이는 “조금씩 모아왔던 용돈에다 부모님이 금액을 보내줘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하이파이브 운동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는 19일 지역 내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5가지 안전 하이파이브 운동'을 실시했다.

5가지 안전 하이파이브 운동은 5가지 소방안전교육(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완강기, 화재 대피요령)을 진행해 도민에게 안전생활 실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운동이다.

## 동정



동홍동 관내 방역활동 참여

◇김대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0일 서귀포시 동홍동마을회원들과 동홍동 관내 방역활동에 참여할 예정.



이호동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0일 이호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호동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임원 선출 및 현안사항을 논의할 예정.



제주체육진흥포럼 개최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0일 도의회에서 '전지훈련 유치실태 조사'를 통해 본 정책방향 개선'을 주제로 '제주체육진흥포럼'을 개최할 예정.

## 팔레스호텔 이웃에 성금 기탁



제주팔레스호텔(대표 이성호)은 최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성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의료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 효돈119센터 노인시설 화재안전점검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센터장 강민욱)는 19일 겨울철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관내 성요셉요양원 등 노인시설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화재안전점검은 소방시설 작동 여부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출입문·피난계단·피난시설 등 유사시 사용 가능 여부와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했다.

##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한도)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 보청기 가격                  | 차상위계층                           | 일 반                                                                      |
|-------------------------|---------------------------------|--------------------------------------------------------------------------|
|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 본인부담금 0원<br>(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 본인부담금 111,000원<br>보청기 제품비용<br>추기 적합 관리비용 20,000원<br>(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래프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사 심의번호 2010-GN180079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1005

